

주 대 영 |  
환경부 생활환경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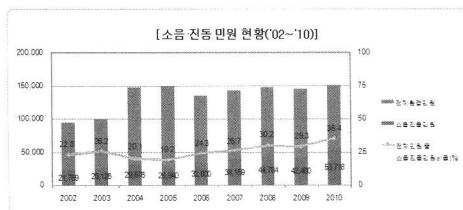
서울대학교 농화학과 졸업,  
캘리포니아대 농업 및 환경화학과(박사) 졸업  
환경부 유독물질과 사무관, 자연정책과 사무관, 수도정책과 서기관,  
국립생물자원관 전시교육과장,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지원과장 근무  
tel.02-2110-6811 | djuca2@korea.kr

# 생활환경 관리현황과 2012년 주요 정책방향

## 생활환경에 대한 국민 인식

'2040년 한국의 삶의 질' 보고서('11. 11,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40년에는 국민의 평균수명이 90세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국민의 평균수명과 그 나라의 경제적인 발전 정도는 비례한다고 하니, 이 90이라는 숫자만 보더라도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가 얼마나 크게 발전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4년 전에는 국민들이 인식하는 국가의 최우선 목표가 '경제강국 진입'이었던 데 비해, '11년에는 '삶의 질 개선'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국민의 평균수명도 연장되면서, 이제는 양적 풍요에 무게를 두던 삶에서 질적 향상에 무게를 두는 삶으로 생활패턴이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생활 주변의 실내공기질 문제, 소음·진동, 빛 공해 등은 개인이 참아야 하는 일이거나, 그것을 문제로 조차 인식하지 않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소음·진동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64%가 과도한 인공조명을 환경오염이라고 인식('10. 11, 환경부) 할 정도로, 당장 나와 내 가족이 사는 공간에 대한 환경적 관심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 생활환경 관리현황

국민의 인식 전환에 발맞추어 환경부(생활환경과)는 '실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환경정책'이라는 슬로건 아래, 국민 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실내 공기, 소음·진동, 빛공해 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심리적 불안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동안 생활환경 관리정책의 영역을 확대하고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시기였다.

### 1. 실내공기질 관리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지난 역사, 대규모점포 등 다중이용시설과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해왔다. '11년에는 영화관, 학원, PC방 등 청소년 이용시설을 새로운 법적 관리대상으로 편입시키는 내용의 법령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유해환경에 민감한 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등 60개소를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진단·컨설팅을 지원한 바 있다.

### 2. 소음·진동 관리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소음·진동의 경우, '10년에 8개 부처 합동으로 「제2차 생활소음줄이기 종합대책('11~'15)」을 수립하여 소음·진동 노출인구를 효과적으로 저감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11년에는 도로변 방음벽의 성능과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방음벽의 성능 및 설치기준 고시」를 개정하였고, 200Hz 이하의 저주파 소음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3.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관리

최근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가 사람과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생활환경 위요인으로 떠올랐다. 환경부(생활환경과)는 '09년부터 이를 관리하기 위한 「빛공해방지법」 제정에 주력해 왔으며 현재 그 결실을 보기 직전에 와 있다.



## 2012년 주요 생활환경 관리정책

지금까지도 많은 성과를 이루었지만, 생활환경정책의 외연을 넓히기 위한 법령 제·개정 및 대책 수립만으로는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고 만족하기에 한계가 있다. 2012년에는 국민의 생활 깊숙이 기여하여 직접적인 효과를 느낄 수 있는 생활공감형 정책을 실현함으로써 국민의 곁에 한발 더 다가서고자 한다.

### 1. 숨쉬기 좋은 실내환경 조성

영유아나 산모 등 민감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가칭) 좋은 실내환경 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시설들이 선의의 경쟁을 통해 스스로 쾌적한 실내 공간을 만들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도 보다 건강한 공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인 목질판상제품<sup>1)</sup>과 건축자재에 대해 오염물질 인증·표시제를 도입함으로써, 제품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을 생산·수입 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하고 소비자에게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생소할 수도 있으나,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흡연에 이은 폐암 유발 원인으로 지목한 라돈<sup>2)</sup>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고자 한다. 전국 주택 1만 가구와 군용시설 약 3,000가지를 대상으로 실내 라돈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전국 라돈지도를 작성할 예정이며, 고농도 라돈 주택에 대해서는 저감 시범사업과 알람기 보급 및 무료 컨설팅 등을 제공하여 라돈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기본법 성격의 「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전면개정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다각적인 규제와 지원 등 관리수단을 도입하는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 2. 국민 불편 없는 정온한 생활공간 조성

전체 소음·진동 민원의 62%를 차지하는 공사장에 대한 소음관리를 최우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공사장 방음시설의 설치기준(성능, 높이 등)을 강화하고 실시간 소음도 공개제도를 활성화하여,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을 통한 자율감시를 유도하고자 한다. 또한 건설기계에 대한 저소음 기준을 마련하여 저소음 공사장비의 공급이 활성화 되도록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소규모 공사장에 대해서는 소음 진단·저감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정 내 가전제품(세탁기, 청소기 등)에 대한 저소음표시 기준을 마련하고, 휴대폰·MP3 등 휴대용 음향기기의 최대음량 권고기준을 제정하는 등 국민의 생활공간과 가장 가까운 소음을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체감 만족도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1) 나무를 얇은 판이나 작은 침으로 가공한 후 접착제를 이용하여 판상 형태로 성형·제조한 제품으로, 구성하는 목재의 크기나 모양에 따라 합판, 패티클보드, 섬유판으로 구분

2) 암석이나 토양, 건축자재 등에 존재하는 무색·무취·무미의 기체로, 지구상 어디에나 존재하는 자연방사성물질

또한, 도시별 소음 저감대책의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친환경적인 도시설계에 활용하고자,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를 대상으로 소음지도 작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 3. 빛공해 없는 안락한 생활여건 조성

무절제한 조명 사용에 의한 국민과 생태계의 피해를 예방하고 좋은 빛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본격적인 빛공해 관리에 착수할 계획이다. 빛공해 방지 종합 계획(5개년)을 수립하여 국가 차원의 중장기적인 빛공해 관리 방향을 제시하고, 전 국토의 빛공해 정도를 평가하여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설정해 나갈 예정이다.

국내 조명의 40% 이상이 국제 기준을 초과하고 있음에 따라, 빛공해 저감 조명기구의 설치·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설계 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좋은 빛 공모전’과 ‘Light Down 캠페인’ 등을 통해 좋은 빛환경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고자 한다.

## 국민과 함께하는 생활환경정책을 약속하며...

시대에 따라 그 시대 국민들의 요구는 다르다. 사·농·공·상의 신분제가 확실했던 조선시대의 백성들 요구와 현대사회의 그것은 분명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국민의 요구는 그 시대의 정책 방향을 제시 한다. 그리고 정부는 그러한 방향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여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게 된다. '07년도 국내 소비자의 로하스 웰빙 관련 인식조사 결과, 국민 대다수(96%)가 건강을 위해 추가비용을 지불 할 의사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것은 환경정책 또한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힘을 말해준다.

생활환경정책은 실생활 속 국민의 눈(빛)과 코(실내 공기)와 귀(소음)를 통해 체감하는 분야라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2012년 역점 과제들과 함께 다양한 생활밀착형 정책을 통해 국민의 눈과 코와 귀가 편안해지고 삶이 건강해지기를 기대해본다.

